

# 작은 꽃

## 주요 날짜:

- 8 월 2 일  
포르치운쿨라의  
천사들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
- 8 월 6 일  
Soup Kitchen 봉사
- 8 월 11 일  
성녀 글라라 동정  
축일
- 8 월 13 일  
성경모임
- 8 월 15 일  
성모 승천 대축일
- 8 월 27 일  
월례회

## 다음쪽:

성경모임

이달의 작은 사람



## 재속 프란치스코 성 디에고 형제회 소식지

### 감사기도

옥 영옥 글라라

바쁘고 숨차게 달려야만 했던 젊은 날들이, 쉼의 시간을 그렇게도 갈망했던 바쁘게 살아온 날들이, 무덤고 후덥지근한 여름처럼 힘들었던 날들이, 지나고 보니 저의 삶 속에 녹아내리는 은총의 시간이 있음을 늦게나마 깨닫게 해주신 내 주님께 해바리기처럼 당신을 향해 감사와 사랑드릴수 있음을 오늘도 감사하며 당신을 모신지 반세기. 이젠 노후를 평온함과 휴식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늘 믿음이 부족해서 하느님과 이웃사랑을 늘상 말로만 하고 생각으로만 할 뿐 정작 사랑의 길에선 멀리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반복되는 실수를 거듭하며 후회하는 일도 이젠 당신 앞에 부끄러워 슬퍼 지기까지 합니다. 저의 허물과 약점을 잘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나약함까지도 사랑해 주며 한없이 가다려 주시는 주님을 이젠 기쁘게 해드리며 웃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살아온 날들과 살아갈 날들을 고마워하며 진정 다시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넓고 큰 세상엔 못 미치더라도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조그마한 사랑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기쁨과 보람으로 주님을 웃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베란다의 벤치에 앉아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에서 짙은 안개비와 당신의 창조물인 아름다운 세상에서 진한 당신의 향기를 가슴 깊이 들이쉬며 창조물까지 사랑하신 사부님을 생각하며 주님 당신을 만납니다. 비가 오면 오는대로 좋고 날이 쾌청하면 쾌청한대로 좋은 우리집 베란다. 우측에는 물론교의 아름다운 성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뽕죽탐엔 동쪽하늘을 향해 나팔을 불고 있는 천사의 모습. 때론 갈매기와 이름 모를 작은새가 베란다에 늘어놓은 먹이 탓인지 내 앞에서 에어쇼를 보여 줍니다. 신기하고 아름다워 사부님처

럼 양팔을 벌리며 내게 오라고 손짓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기쁨과 보람으로 한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아침을 맞게 합니다. 주님 흠숭받으시옵소서!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심을 가슴 가득 느끼며 한 없는 행복에 젖습니다. 내가 당신 안에 있고 내 안에 당신이 계시면 모든 것이 편안해지는 이 순간들이 소중하고 내 주위 모든 것들이 소중하고 항상 내안에 계셔 세상의 욕망이나 욕구로부터 해방시켜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이 마음 간직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끝없는 욕망과 이기심의 돌덩이를 참회의 기도로서 깨뜨려 주시고 욕심을 버리는 연습을 통해 웅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도 주시고 흔들림 없이 자랄수 있도록 손들 잡아 주십시오. 당신이 부르시는 날 기쁘게 달려갈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해주십시오. 내 모든것은 당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서약미사, 입회식



약속

지난달 25 일 Anaheim 에 위치한 성 토마스 성당에서 Orange County 성 프란치스코, Rowland Heights 성 글라라, West Minster 성 글라라, 막시밀리오 끌베 그리고 성 디에고 다섯 형제회가 함께 모인 가운데 합동입회식과 서원미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모처럼 여러 형제들이 함께 모인 이번 행사에는 미국을 방

## 성 디에고 형제회

월례회:  
매달 4 번째 주일  
오후 2 시 30 분  
St. Columba 성당  
3327 Glencolum Dr  
San Diego, CA 92111

전화:  
(858) 484-1943

E-MAIL:  
oh\_younghoon  
@yahoo.com

‘작은꽃’에 관한 문의:

전화:  
(858) 618-1164

E-MAIL:  
kwon\_youngwan  
@yahoo.com

## 이달의 작은 사람



문 중이신 작은형제회의 김 창재 다미아노 신부님이 참석하셔서 미사를 집전해주셨고, 끌베 형제회의 영적보조자이신 끈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김 마르티노 수사님 그리고 저희 형제회의 영적보조자 Mark 수사님께서 함께 자리하여 주셨습니다.

서원미사에 앞서 진행된 입회식에서 저희 형제회의 강 도미니꼬, 마리아 부부와 오 율리아나 자매를 포함한 입회자 34 명이 프란치스코 형제회 삶의 첫 발을 뒀으셨습니다. 성대하게 진행된 장장(?) 3 시간의 서원미사 중에는 저희 형제회의 기 바오로, 루피나 부부가 다른 형제회의 서원자 9 명과 함께 재속 프란치스코 회칙과 회헌에 따른 삶을 주님 앞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도 물론 헤어지기가 섭섭해 모두 비공식 연례 일정 장소인 홀來燈으로 자리를 옮겨 좀더 시간을 같이 보내고서야 헤어졌습니다.

뜻 깊은 이번 행사에 마추어 장장 2 년도 넘게 계획하여 우리 형제들의 손으로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형제회기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권 요한 정리]



모두 - 베로니카

## 성경모임 - 사무엘 하편



범생이들(?)

날씨가 더운 탓인지 아니면 이번달에 주일이 다섯번 있는 관계로 날자가 혼돈되서인지 많은 형제들이 참석치 않은 가운데, 단촐하게 8 명의 골수(?)들만 모여 성경모임이 진행되었다. 다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처음의 열정을 한번 되돌아 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스도의 선조 다윗의 강력한 왕정 정치 이야기로 이어지는 사무엘 후서에서는 드라마틱한 전개로서 그동안 낯설고 어색했던 단어들이 조금씩 익숙해 지면서, 성경공부의 흥미가 더 해지고 있다. 유대인들로부터 기름 부어진 다윗의 세력과 사울왕의 아들 이스브셋의 대결 속에서 단순했던 인간의 죄상이 점점 다각도로 펼쳐지고 그에 대한 하느님의 벌이 내려짐은 오늘날을 살면서 많은 유혹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하느님으로부터 영원한 왕위를 보장받은 다윗의 죄도 벌하시는 하느님, 그리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용서를 비는 다윗의 모습에서, 하느님의 축복과 죄의 사함은 진정한 인간의 회개에서 이루어짐을 느꼈다.

[전 세레나 정리]

2004년 9월 소식지 작은꽃의 시작을 알리면서 ‘스스로 공돌이라 칭하며 엔지니어의 엄밀함을 잃지 않는 열정을 지닌 모범적인 신앙인’이라 칭하여졌던 편집인 권영한 형제를 이달의 작은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사도 요한(축일12월27일)이 본명성인인 형제는 부친의 미국유학 중 Berkeley에서 출생하였고 3살때 가족의 귀국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1982년 18세에 대학진학을 위하여 다시 도미, 우주항공공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위성발사체 제조회사를 시작으로 현재는 방위산업체에서 software engineer로 일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을 격한 7년간 교재의 결실로 로사 자매와 1988년 명동성당에서 혼배하여 2남(오민, 오훈)을 두고 있습니다. 1990년 샌디에고 한인성당에서 영세받았고 주 미셸 자매님의 권유로 형제회에 입문, 도미니꼬 신부님의 지도로 첼라노 필사라는 호된 준비기간을 거친 후 1999년 11월 입회에 이어 2002년 5월 26일 서원하였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더하여 프란치스코 성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부님의 단순성에 매료되어 생활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과연 프란치스코적인가를 돌아보면서 작으나마 충실한 변화를 위한 나만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